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최근 5년간 진료현황

이근정 주임연구원  
통계정보센터 정책분석팀



## 1. 들어가며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치매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음. 201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53만4천명으로 추정됨.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는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빨라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2008년 5,016천명→2012년 5,890천명)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26.8%(421천명→534천명)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표 1 참조).

표 1.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단위: 천명)

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357	5,890	8,084	10,331	12,691	16,501	17,991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69	534	794	1,033	1,221	1,851	2,379
치매 유병률(%)	8.4	8.8	9.1	9.8	10.0	9.6	11.2	13.2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2012.

○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2년 1분기 기준 상병별 총진료비 상위 30위 항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상병의 총진료비가 30.4% 증가하여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진료비 증가율은 2011년 1분기 기준 총진료비 증가율 분석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와 같이 치매 환자의 급증과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표 2.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의 내원일수 및 총진료비 변화(2007-2011)

(단위: 천원, 일,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진료비	합계	111,099,838	185,458,879	253,907,814	330,376,888	404,126,758
	(전년대비 증가율)	(80.7)	(66.9)	(36.9)	(30.1)	(22.3)
	입원	94,946,522	166,312,309	229,837,353	301,974,706	370,629,906
	(전년대비 증가율)	(92.5)	(75.2)	(38.2)	(31.4)	(22.7)
	외래	16,153,316	19,146,570	24,070,461	28,402,182	33,496,852
	(전년대비 증가율)	(32.8)	(18.5)	(25.7)	(18.0)	(17.9)
내원일수	합계	1,992,386	3,214,541	4,285,080	5,219,200	6,255,048
	(전년대비 증가율)	(66.5)	(61.3)	(33.3)	(21.8)	(19.9)
	입원	1,742,344	2,913,223	3,861,036	4,683,105	5,575,884
	(전년대비 증가율)	(76.0)	(67.2)	(32.5)	(21.3)	(19.1)
	외래	250,042	301,318	424,044	536,095	679,164
	(전년대비 증가율)	(21.1)	(20.5)	(40.7)	(26.4)	(26.7)
내원일당진료비		55,762	57,694	59,254	63,300	64,608
(전년대비증가율)		(8.6)	(3.5)	(2.7)	(6.9)	(2.1)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진료실인원수를 분석하였음.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입원환자수는 2007년 14,514명에서 2011년 36,247명으로 2.5배 증가하였음. 전년대비 입원환자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7년에 전년대비 62.0%, 2008년에 전년대비 53.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10~20%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외래환자수는 2007년 47,114명에서 2011년 125,926명으로 2.7배 증가하였음. 전년대비 외래환자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에 전년대비 35.4% 증가하였으며 이후 30% 이내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입원환자수와 내원환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입원환자수가 22.4%, 외래환자수가 77.6%를 차지하여 외래환자수가 입원환자수보다 3.5배 정도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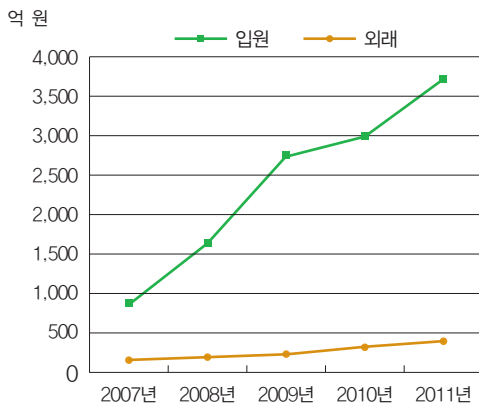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 총진료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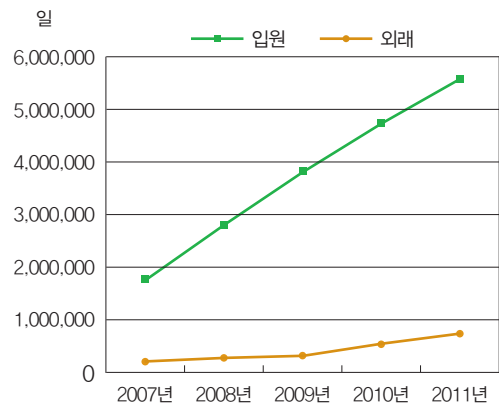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 내원일수 증가 추이

표 3.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의 진료실인원수 변화(2007-2011)

(단위: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입원	14,514	22,270	26,791	30,219	36,247
(전년대비 증가율)	(62.0)	(53.4)	(20.3)	(12.8)	(20.0)
외래	47,114	58,845	79,683	101,285	125,926
(전년대비 증가율)	(20.8)	(24.9)	(35.4)	(27.1)	(24.3)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2012.

○ 이상의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의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 진료실인원수에 대한 분석 결과, 2007년 대비 2011년의 총진료비는 3.6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내원일수는 3.1배 증가하였음. 전체 진료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의 경우 동 기간 내원일수는 3.2배 증가하였고 실입원환자수는 2.5배 증가하였음.

- 내원일당 진료비가 1.2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진료행위의 가격 상승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의 총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내원일수와 입원환자수의 변화를 보면 입원환자수의 증가율보다 내원일수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내원일수의 증가가 총진료비 증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3.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요양기관종별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총진료비를 요양기관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표 4).

- 2007년 대비 2011년의 총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5배, 종합병원 1.9배, 병원 1.7배, 요양병원 5.0배, 의원 1.2배 증가하여 전체 진료비는 3.1배 증가하였음.
-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 총진료비의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이 82.4%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다음으로 병원(9.5%), 종합병원(4.2%), 상급종합병원(2.0%), 의원(1.9%) 순이었음.
- 연도별로 종별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경우 2007년 60.3%에서 2011년 82.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였음.

표 4.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단위: 천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급종합병원	5,181,553	5,992,213	7,567,617	7,815,205	8,005,140
(점유율)	(4.7)	(3.2)	(3.0)	(2.4)	(2.0)
종합병원	9,046,224	10,146,366	12,125,540	14,448,993	16,975,388
(점유율)	(8.1)	(5.5)	(4.8)	(4.4)	(4.2)

병원	23,223,689	31,591,306	31,709,044	34,237,307	38,370,500
(점유율)	(20.9)	(17.0)	(12.5)	(10.4)	(9.5)
요양병원	67,006,976	130,641,654	196,489,287	267,345,502	333,072,143
(점유율)	(60.3)	(70.5)	(77.4)	(80.9)	(82.4)
의원	6,621,236	7,065,442	5,991,356	6,494,019	7,634,063
(점유율)	(6.0)	(3.8)	(2.3)	(2.0)	(1.9)
기타	20,158	21,896	24,966	35,860	69,522
(점유율)	(0.0)	(0.0)	(0.0)	(0.0)	(0.0)
합계	111,099,836	185,458,877	253,907,810	330,376,886	404,126,756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내원일수를 요양기관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표 5).

- 2007년 대비 2011년의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 1.8배, 종합병원 2.2배, 병원 1.6배, 요양병원 3.9배, 의원 1.4배 증가하여 전체 내원일수는 3.1배 증가하였음.
-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 내원일수의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이 80.7%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다음으로 병원(10.1%), 종합병원(4.2%), 의원(3.4%), 상급종합병원(1.5%) 순이었음.
- 종별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2007년 64.3%에서 2011년 8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2007년 이후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였음.

표 5.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요양기관 유형별 내원일수 및 점유율

(단위: 일,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급종합병원	51,675	58,579	76,513	86,984	93,720
(점유율)	(2.6)	(1.8)	(1.8)	(1.7)	(1.5)
종합병원	118,746	133,593	170,849	212,065	260,594
(점유율)	(6.0)	(4.2)	(4.0)	(4.1)	(4.2)

병원	387,958	515,827	512,107	562,041	634,917
(점유율)	(19.5)	(16.0)	(11.9)	(10.8)	(10.1)
요양병원	1,280,607	2,336,326	3,354,259	4,175,604	5,046,517
(점유율)	(64.3)	(72.7)	(78.3)	(80.0)	(80.7)
의원	152,667	169,395	169,952	180,597	216,124
(점유율)	(7.6)	(5.3)	(4.0)	(3.4)	(3.4)
기타	733	821	1,400	1,909	3,176
(점유율)	(0.0)	(0.0)	(0.0)	(0.0)	(0.1)
합계	1,992,386	3,214,541	4,285,080	5,219,200	6,255,048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007년 대비 2011년의 진료실인원수는 상급종합병원 1.9배, 종합병원 2.5배, 병원 3.2배, 요양병원 2.7배, 의원 3.0배 증가하여 총 진료실인원수는 2.6배 증가하였음.
-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 진료실인원수의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요양병원이 23.2%, 의원이 18.2%, 병원 17.2%, 상급종합병원 12.2%, 기타 0.5% 순이었음.

표 6.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요양기관 유형별 실인원수 및 점유율

(단위: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급종합병원	10,347	11,893	16,106	18,242	19,834
(점유율)	(16.8)	(14.7)	(15.1)	(13.9)	(12.2)
종합병원	18,758	23,172	29,002	37,675	46,662
(점유율)	(30.4)	(28.6)	(27.2)	(28.6)	(28.8)
병원	8,834	11,706	15,999	21,451	27,852
(점유율)	(14.3)	(14.4)	(15.0)	(16.3)	(17.2)

요양병원	13,664	21,479	27,231	30,861	37,572
(점유율)	(22.2)	(26.5)	(25.6)	(23.5)	(23.2)
의원	9,856	12,590	17,708	22,713	29,471
(점유율)	(16.0)	(15.5)	(16.6)	(17.3)	(18.2)
기타	169	275	428	562	782
(점유율)	(0.3)	(0.3)	(0.4)	(0.4)	(0.5)
합계	61,628	81,115	106,474	131,504	162,173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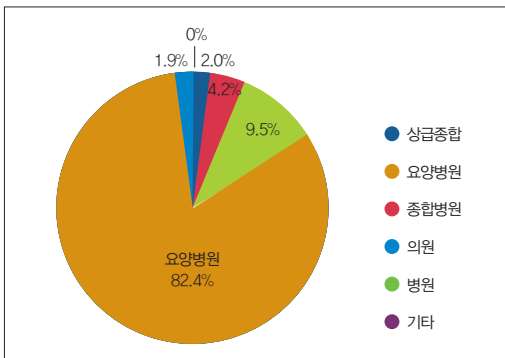


그림 3.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요양기관 유형별 총진료비 점유율(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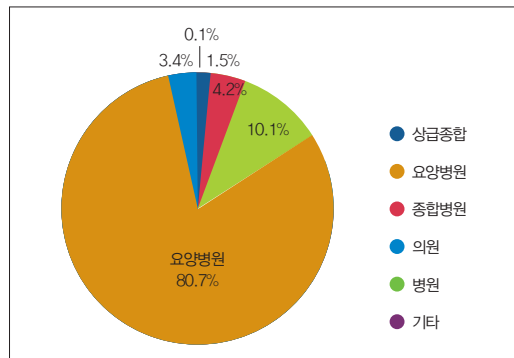


그림 4.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요양기관 유형별 내원일수 점유율(2011)

○ 이상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진료경향에 대한 요양기관 유형별 분석을 종합해보면 요양병원의 총진료비와 내원일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1년 기준 총진료비와 내원일수 모두 요양병원의 점유율이 80%를 상회하였으며, 2007년 대비 2011년의 총진료비는 5배, 내원일수는 4배 증가하였음.
- 특히 2007년과 2008년 요양병원의 내원일수와 총진료비 모두 전년대비 60%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동 기간동안 진료실인원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요양병원의 총진료비 증가는 환자수의 증가보다 내원일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가 급격한 증가한 것은 치매 환자 수 자체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한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요양병원 기관수의 증가에 따른 유인수요(induced demand)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2006년 이후 요양병원의 기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전년 대비 78.2%, 64.4% 기관수가 급증하였으며 병상수 또한 74.3%와 50.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기관수와 병상수 증가가 요양병원의 치매 상병 총진료비와 내원일수 증가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표 7.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 추이(2006-2011)

(단위: 개,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양병원기관수	360	592	689	766	867	988
(전년대비증가율)	(78.2)	(64.4)	(16.4)	(12.6)	(11.6)	(14.0)
요양병원병상수	43,625	65,696	74,935	87,284	109,490	134,930
(전년대비증가율)	(74.3)	(50.5)	(14.1)	(16.5)	(25.4)	(23.2)

#### 4.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성별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를 성별로 살펴보았음.

- 총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2007년 대비 2011년에 3.1배 증가하였고 여성은 3.8배 증가하였음. 내원일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남성이 2.7배, 여성이 3.3배 증가하여 여성의 총진료비와 내원일수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 총진료비의 성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남성은 22.8%, 여성은 77.2%로 여성의 총진료비 비중이 3배 이상 많았음. 총진료비의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7년 26.9%에서 2011년 22.8%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은 2007년 73.1%에서 2011년 77.2%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내원일수의 성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남성은 22.7%, 여성은 77.3%로 여성



의 내원일수가 3배 이상 많았음. 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7년 26.1%에서 2011년 22.7%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은 2007년 73.9%에서 2011년 77.3%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8.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성별 내원일수 및 총진료비

(단위: 천원, 일,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진료비	남	29,912,873	44,470,595	62,099,479	77,418,347	92,023,665
	(점유율)	(26.9)	(25.2)	(24.5)	(23.4)	(22.8)
	여	81,186,964	132,062,626	191,808,334	252,958,541	312,012,653
	(점유율)	(73.1)	(74.8)	(75.5)	(76.6)	(77.2)
내원일수	남	520,609	755,641	1,034,520	1,221,115	1,422,466
	(점유율)	(26.1)	(24.8)	(24.1)	(23.4)	(22.7)
	여	1,471,777	2,296,924	3,250,560	3,998,085	4,831,165
	(점유율)	(73.9)	(75.2)	(75.9)	(76.6)	(77.3)

## 5.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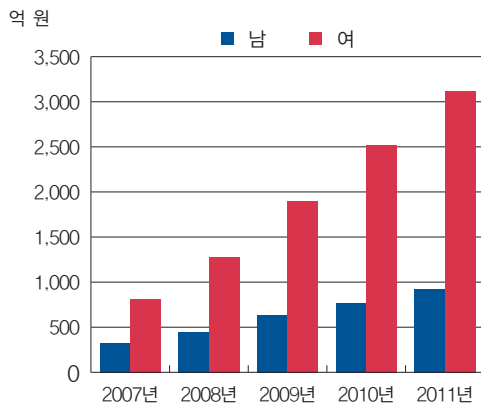


그림 5.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성별 총진료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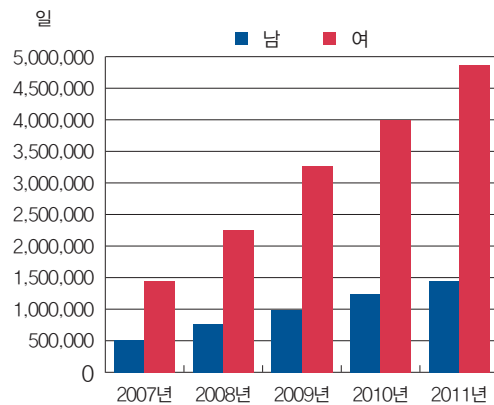



그림 6.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의 성별 내원일수 변화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8,100억원으로 노인성 질환 중 뇌혈관질환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1인당 진료비는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료 및 관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임<sup>1)</sup>.
  
- 치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상병의 요양급여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총진료비는 4,041억원으로 이 중 입원이 3,706억원, 외래는 334억원으로 나타남.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총진료비는 3.6배, 입원진료비는 3.9배, 외래진료비는 2.1배 증가한 것임.
  - 이러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치매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기관을 찾은 실제 환자수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으나(2007년 대비 2011년의 진료실인원수 2.5배 증가) 동 기간의 내원일수가 3.1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증가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앞선 요양기관종별 분석에서 지적하였듯이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 증가에 따른 유인수요(induced demand)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병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 등을 이유로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충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함. 

---

1)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2012.